‘태엽 전사’ 시놉시스

한 시골 마을에 부자집에 무언가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부모님은 부자였지만 일 때문에 아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조차 내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천재성을 통해 로봇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소년의 부모님도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지원으로 명문대를 졸업해 세계적인 메카닉 계발자가 된다.

그 소년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연구 팀을 꾸려 비밀리에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을 시작하고 수년간 소식이 없던 와중 소년의 지인에게서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전세계가 그 소년이 만들 결과물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발에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연구자료는 모두 연소 또는 소실되었고 연구팀원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정부는 조사팀을 파견해 폭파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개발 막바지였던 소년의 연구자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모두 소멸해 아무도 소년의 연구 성과를 알 수 없어졌다.

한 시골 마을 부자집에 손재주가 남다른 소년이 살고 있었다.  
부잣집 자식이지만 부모님이 바빠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시골이라 친구를 만나러 가기에는 몇 시간을 걸어 가야 했다. 그래서 소년은 태엽으로 혼자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덕에 소년은 명문대를 졸업한 세계최고의 기계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부모님으로 물려 받은 자본과 천재성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의 발명품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꿨고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다.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 받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발명품 개발을 위해 스스로 인적 드문 지역에 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좋은 의도로 숨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가 자취를 감춘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의 고향 시골 마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던 소년은 주위에서 천재라 불렀고 부모의 지원덕에 명문대학교 박사까지 되었다. 소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빠 시간이 없었던 것이 떠올라 세상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살수 있게 도우미 역할을 할 로봇을 만들고 싶었다. 스스로 연구 팀을 꾸려 학교에서 연구를 비밀리에 시작하던 소년은 수년이 지난 뒤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세상에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발표를 하기로 했던 일주일 전 연구소에서 폭파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을 조사하던 정부는 연구원 전 인원이 사망했고 연구자료도 모두 연소되어 찾을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뻔했던 소년의 죽음에 연구 결과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 잊혀졌다.